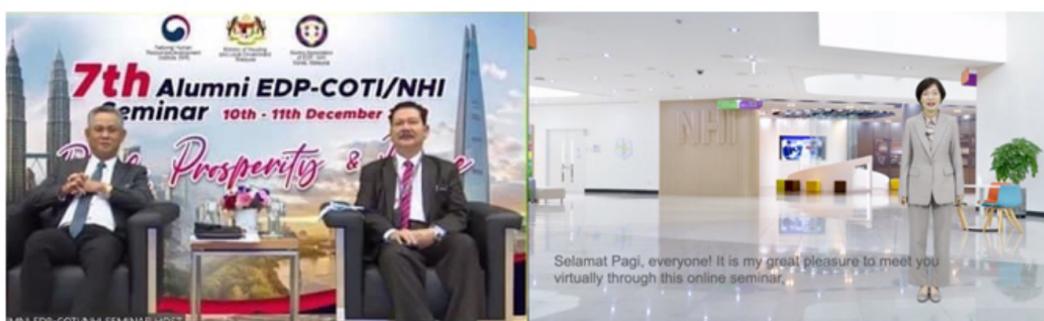


구성	주요내용
NHI News(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공무원 교육과정 수료생 대상 온라인 세미나 개최 - 위기대응 리더십과 정부의 역할 등 한국의 행정 경험을 말레이시아에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 쇼, 연극 등 적극행정 온라인 공개강좌 개최 - 국가인재원, 온라인 플랫폼 기반 최초의 비대면 공개강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재원 교직원 HRD역량향상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코로나 대응 강화를 위한 고위직 정책교육 시작 - 제29기 고위정책과정 On-Off 입교식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온라인 우수 학습자료, 국민에 개방 - 2월1일부터 '나라배움터'서비스 시작, 매달 대국민 관심 주제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 한방에 해결 - '온라인 실시간 교육, 어디까지 해봤니?' 발간, 교육기관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사무관이 되기 위한 민간 전문가의 첫걸음 - 2021년 신입관리자과정(경채) 실시간 온라인 입교식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즈베크 국가행정아카데미 교수·교직원에 직무역량 강화교육 실시! - 대한민국 발전상 및 미래정부 구상 전략 등 전수, 행정개혁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 교육, 최고 강사 선정 - 박태현 교수·천정아 변호사, '20년 국가인재원 명예의 전당 헌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마음건강, 세대 간 소통은 어떻게? - '제1회 온(On)세상 지식 탐구생활' 온라인 공개강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국가인재 교육의 산실이 되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설립 72주년
NHI Plus+(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코로나지만, 괜찮아' - 집콕 시대의 코로나 블루 극복법
기 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더 스마트하게 해주는 Self 인재개발 퀴즈

말레이시아 공무원 교육과정 수료생 대상 온라인 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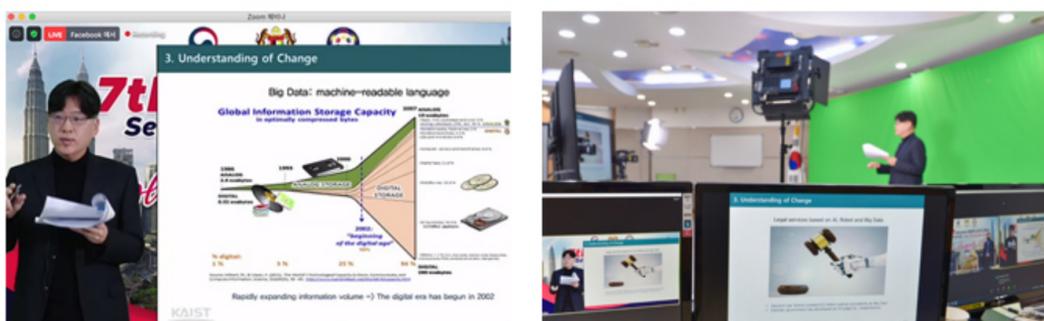
— 위기대응 리더십과 정부의 역할 등 한국의 행정 경험을 말레이시아에 공유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지난 12.10~11일 양일간 국가인재원의 말레이시아 공무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 해당 세미나는 1984년 개설돼 현재까지 총 83회 진행, 1,666명이 수료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말레이시아공무원 교육과정 수료생들이 2011년 자발적으로 결성한 동창회를 지원하고, 수료생과 국가인재원간 교류 협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매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실시해 왔다.
 - 올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화상으로 연결,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개회식 (원장 개회사 등)

- '코로나19 극복 및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 - 말레이시아 주제 포럼,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 협력회의, 연수성과에 대한 현업적용 경진대회로 구성하였다.
 - 기초강연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초불확실성 시대에 정부의 발전전략에 대해 미래예측을 통한 정책수립 등의 필요성, 특히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 될 것에 대비한 변화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초강연

- 이후 한말 주제포럼에서는 비롯한 양국의 전문가들이 ▲위기시대의 정부의 역할과 리더십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경제회복 전략 ▲공무원 핵심가치의 중요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본 세션에서 양국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속성장 및 발전을 위해 양국의 진지하고 활발한 경험 공유를 하여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질문과 호응을 받았다.



한말 전문가 주제 포럼에서 토론 모습

-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관의 협조로 진행된 한·말 수교 60주년 기념 협력회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인 '사람, 평화, 공동번영'을 주제로 양국간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경험과 사례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한말 우호협력 포럼

- 마지막으로 수료생들이 연수 당시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 적용한 사례를 발표하고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는 경진대회는 이를 통해 수료생들간 또 다른 배움의 기회로 활용하였으며, 타 수료생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특히 방한 연수 중 한국정부의 IT를 활용한 행정개혁 및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경험한 수료생은 말련정부의 공무원 채용시험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된 노력 등 사례를 소개, 가장 큰 호응을 받아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하였으며, 한국연수로 시민의 사회 참여와 책임의 중요성을 느낀 수료생은 연수 후 자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행사를 시작하였고, 이에 동창회 및 민간기관의 다양한 지원을 얻어 이러한 노력을 정례화하는 등 확산해가고 있다고 발표, 매우 뜨거운 공감을 얻기도 했다.
- 동창회측은 금번 케이(K)-방역 관련 한국 경험에 대한 말레이시아 현지의 높은 관심도를 고려해 페이스북(facebook)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생중계를 하기도 해, 더 많은 일반 공무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다.
-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료생 동창회가 말레이시아 국가 발전 및 양국 간 우호관계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말 공동 번영을 위해 공공분야 인적교류 및 행정한류 마중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이치범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는 폐회식에서 금년 한·말 수교 60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3년간의 추진 결과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가 강화되었음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국가간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한 수료생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말레이시아 과정 수료생들은 동창회를 통해 한국의 행정발전사례를 현지에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행사에 활발히 참여하며 자국 내 행정한류 전파를 위한 홍보대사 역할을 해내고 있다.



세미나 폐회식 모습

이야기 쇼, 연극 등 적극행정 온라인 공개강좌 개최

— 국가인재원, 온라인 플랫폼 기반 최초의 비대면 공개강좌 운영 —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이야기쇼, 연극 등 몰입도 높은 방식으로 공유하는 '적극행정 온라인 특별 공개강좌'가 열렸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행성(소중한 적극행정 성공스토리) 온라인 특별강좌가 27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자기개발과 상시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기획된 비대면 공개강좌로, 유튜브와 구루미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됐다.



행사 시작 전 포스터를 보는 모습



국가인재원 원장 인사말씀 모습

이번 공개강좌 주제는 '위기에서 빛난 적극행정'으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실제 사례 주인공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와 숨은 활약상 등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풀어내었다.

먼저, 정책홈쇼핑 개념으로 방송 판매자가 '20년 8월 새롭게 강화된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과 인사상 혜택 등을 흥미진진하게 전달하는 짧은 영상으로 홈쇼핑을 보면 상품을 사고 싶듯이 적극행정을 당장 실천하고 싶은 마음을 샘솟게 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국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산업부 노형철·김성건 사무관,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박원호 사무관이 참여하여 자신의 공직관과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하는 '특별한 그들과의 유쾌한 대화'가 진행됐다.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적극행정의 생생한 현장을 속속들이 알수 있는 색다른 체험이었다.



정책호스트가 강추하는 적극행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 시스템 개발

마지막 순서로는 코로나19 확산 속 학교급식 중단으로 위기에 처한 급식농가를 돕기 위해 기획되고 추진되었던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공급사업'을 소재로 만든 '돌아온 순희' 연극 공연이 펼쳐졌다. 연극이 시작되자 주인공 순희와 함께 거친 파도를 넘어 적극행정이라는 바다를 헤쳐 나가는 느낌이었다.



돌아온 순희 연극 장면



돌아온 순희 연극 종료 후 소감 공유

국가인재원은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시의성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이번 '소행성'과 같이 정기적으로 온라인 생중계 방식의 공개강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당일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공무원들을 위해 이번 교육내용을 온라인 교육자료로 별도 제작하여 인재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누리집 '나라배움터'(http://e-learning.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인재원 박춘란 원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유례없는 위기 극복의 역사를 만들고 있고 그 중심에 적극행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의 소행성 공개강좌가 서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강좌 종료 후 원장님, 연극공연팀, 공연담당(스마트개발과) 직원 기념촬영

2021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계획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선도하는 정책역량을 갖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국가인재를 양성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을 넘어 급격한 사회·경제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가 현실화되고, 디지털혁신에 기반한 4차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전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핵심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공무원의 역량이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산재된 위기 속에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는 공직사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에 2021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유능한 공무원, 헌신하는 공직사회로의 변화와 혁신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교육을 혁신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한 핵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주요 국정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고, 적극행정, 성인지교육 뿐만 아니라 정책사각지대 현장방문 등 사회적 가치 함양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특히 공직가치 교육을 토크콘서트, 역할연기 등 플립러닝 기반의 참여형·몰입형 교육으로 전면 개편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둘째, '국가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품질 혁신'입니다. 이론중심,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내용은 현장·실무중심으로, 교육방법은 토론·실습 등 참여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개편한 정책교육을 더욱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직급·직렬 등 교육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 내 AI·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해 데이터(Data), 인공지능(AI) 등을 다루는 DNA 아카데미를 교육생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등 정보화교육의 품질도 함께 혁신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인재개발(HRD)을 선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비대면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교수설계 기법과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학습지도교수(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해나가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세미나 개최, 컨설팅 등을 강화하여 정부의 디지털 HRD 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습자 주도의 자발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이러닝 학습패턴을 분석하여 학습경로 기반의 맞춤형 추천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나라배움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행정한류 확산을 위한 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내실화'입니다. 실습 확대 등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 국내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증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중점 협력국 공무원 교육을 확대하고, 수료생 사후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공공 HR 컨퍼런스 등 각종 교류 행사들을 보다 개선하여 글로벌 공공 인재개발 허브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인재개발 혁신을 위한 허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재개발 협력 네트워크, 관·연·학연구협의회 등을 통해 우수 교육사례 및 최신 HRD 트렌드 공유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또한 학계·전문기관과의 내실 있는 교류사업을 통해 HRD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급 교육훈련기관 대상 맞춤형 HRD 컨설팅을 제공하여 공공 인재개발의 중추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2021년 우리사회는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도전에 과감히 맞서,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유능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2021년 교육운영계획은 이러한 국가핵심인재 양성을 통해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국가인재원의 의지와 각오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우리의 교육이 대한민국 정부 역량을 결정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박춘란

국가인재원 교직원 HRD역량향상 프로그램 운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교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직원 HRD역량향상」 프로그램을 1. 25.(월), 28.(목), 2. 4.(목) 진천캠퍼스에서 개최했다.
-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신규직원의 성공적 조직 안착을 도모하고 기존에 인재원에 근무중인 직원들의 교육운영 역량 향상 증진을 위하여 설계된 교육과정으로
 - '포스트 코로나시대 HRD동향과 담당자의 역할' 및 '교육과정 설계·평가 특강 등 교육 운영자로서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HRD 기본 지식 습득을 위한 교과목과
 - '비대면 교육 플랫폼 활용 방법' 및 '타 교육기관 우수 교육과정 사례 등 실무 중심의 교과를 편성하였다.
- 특히, 이번 교육은 보다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집합 강의와 연계하여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송출하여 교육 참여도를 높였다.
- 앞으로도 국가인재원은 교직원들이 HRD 담당자로서 전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장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주소: 구루미 Biz-20210204-101757-hrd역량-향상-프로그램.webm



포스트코로나 대응 강화를 위한 고위직 정책교육 시작

— 제29기 고위정책과정 On-Off 입교식 개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전략적 국정리더 양성을 목표로 정부 각 부처 국장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을 대상으로 하는「제29기 고위정책과정」입교식을 지난 2월 1일에 개최하였다. 이번 입교식은 코로나19 감염전파를 우려하여 On-Off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47명과 공공기관 임원급 18명 등 모두 65명이 참여하였다. 박춘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 원내 간부 등이 입교식 현장에 참석했으며, 교육생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영상으로 축하와 환영을 받았다.



국가인재원장 입교사



인사혁신처 차장 환영사



교육생 대표 입교소감



입교식 기념 촬영

고위정책과정은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정책 전반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통찰력을 갖춘 중추적 국정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1993년 시작하여 3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인재원의 대표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강의 및 현장학습, 범부처 간 협업을 위한 팀과제 연구수행, 사회공헌활동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전략적 국정리더 양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2021년도 교육과정에서는 급격한 미래 변화 대응력과 고도의 정책역량 함양을 위한 「미래 전략 아카데미」와 포스트코로나 대응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다부처 관련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PBL(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문제중심 학습법)방식의 팀과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그 밖에도 강의와 연계한 토론과 현장학습, 디지털 역량 체험 프로젝트, 사회공헌 활동,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생과 멘토링, 전문기관 연계 협력포럼 등 소통과 교류를 토대로 고위공직자의 정책역량 향상 도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춘란 원장은 “본 과정은 교육 후 현장 복귀 즉시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이끌 리더를 양성한다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과정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실 것”과 “앞으로의 45주간의 교육 기간이 개인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알차고 보람있게 사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고위정책과정 교육생들에게 당부의 인사로 입교식을 마무리 하였다.

공무원 온라인 우수 학습자료, 국민에 개방

— 2월1일부터 '나라배움터'서비스 시작, 매달 대국민 관심 주제 추천 —

국민 관심분야의 우수 학습자료가 공무원 온라인학습 누리집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2월 1일부터 '2021년도 나라배움터 온라인학습'을 시작하고, 이 가운데 매월 국민 관심분야 우수 학습콘텐츠를 별도로 선정해 국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나라배움터'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내 손 안의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온라인학습 누리집으로, 공직가치, 공직리더십, 직무 등 공직 특화 과정은 물론, 외국어, 인문, 생활건강까지 폭넓은 분야의 학습자료를 정규과정, 마이크로러닝, 전자책, 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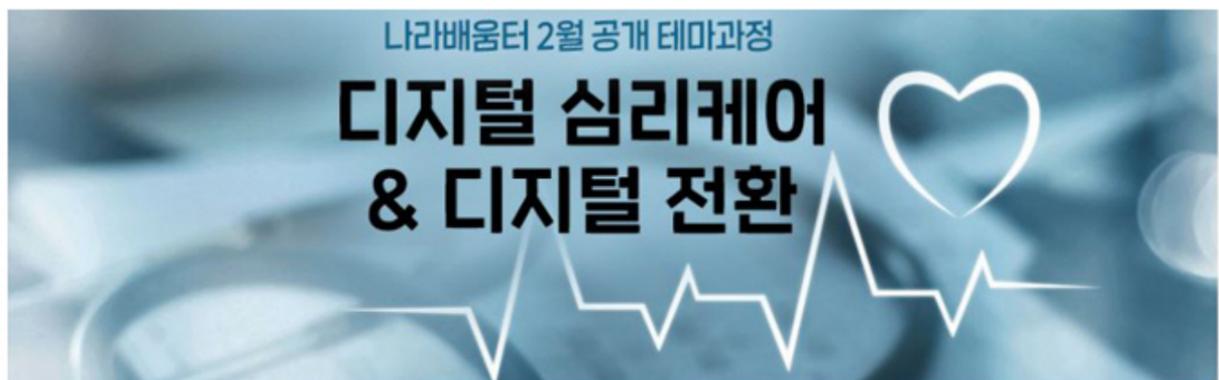
추천과정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간 480만회 이상 학습할 정도로 이용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이와 같은 온라인학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풍부한 학습 자료를 편성했다. 정규과정과 마이크로러닝, 전자책, 오디오북 서비스를 확대하고, 카드뉴스, 웹진 등을 통해 최신 정보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1,480개 과정이었던 정규과정은 올해 1,717개로 늘리고, 마이크로러닝도 12,000편에서 13,525편으로, 전자책은 1,689종에서 2,202종으로, 오디오북은 56종에서 147종으로 대폭 늘린다.

또한 공직 특화 기획콘텐츠를 확충하고, 유통도 다각화할 방침이다. 국정 시책, 최신 수요분야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흥미와 몰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형 학습콘텐츠(좌담회, 강연, 연극 등)를 확대 제작한다. 더불어, 다른 기관이 보유한 교육가치 높은 영상 콘텐츠도 정기적으로 모아 제공하고, 지난해 시범 행사로 진행했던 '내가 만든 마이크로러닝 공모전'을 상설화해 학습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상시 등록,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매월 시의성 높은 분야의 학습자료를 모아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학습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2월에는 코로나19 이후 핵심 화두로 떠오른 '코로나 블루'와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20여 개의 우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교육과정

공직가치, 리더십, 경제-경영, 인문-소양 등 이러닝 콘텐츠 과정



기타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스트레스를 동력으로!



생활-건강 > 가정
나를 위한 심리학, 가족
힐링테라피



생활-건강 > 마음관리
신영철 박사의 스트레스 관리

디지털 심리케어

마이크로 러닝

선택해 학습하는 과정 이러닝 각각의 차이를 클립형 콘텐츠로 구성. 원하는 내용만 선택해 학습하는 과정



리더십 > 리더십 공통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자기



생활-건강 > 마음관리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법, 그냥



생활-건강 > 마음관리
세상과 거리두기가 필요한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초불확실성 시대를 대비하는데 있어 인재개발(HRD)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국가인재원의 다양한 인재개발 기능과 네트워크를 총가동해 대한민국이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 한방에 해결

— '온라인 실시간 교육, 어디까지 해봤니?' 발간, 교육기관 배포 —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교육이 강조되는 가운데 온라인 실시간 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실무 지침서가 나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교육담당자가 온라인 실시간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실시간 교육(Virtual Class*) 어디까지 해봤니?' 책자를 2월 11일에 발간, 배포했다

* 기존 이러닝의 단방향 전달방식의 한계를 개선하여, 가상공간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교류 및 참여활동 등이 가능토록 한 온라인 실시간 교육방식

이 지침서는 국가인재원의 실제 운영경험 및 사례를 토대로 제작되었으며, 교육운영 각 단계별로 교육담당자가 중점적으로 고려·점검해야 할 모든 사항이 담겨 있다.

온라인 실시간 교육과정의 기획·설계부터 전용 교육장 구축, 장비·네트워크 점검, 강사의 교육진행 보조 및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까지 유용한 정보와 자료가 총망라됐다.

【'온라인 실시간 교육(Virtual Class) 어디까지 해봤니' 주요내용】

목차	주요 내용
1. 온라인 실시간 교육의 시작	■ 교육변화 방향, 버추얼 클래스 특징 및 운영시 고려사항
2. 온라인 실시간 교육환경 구축	■ 온라인 실시간 교육환경 구축 요소 설명
3. 효과적인 온라인 실시간 교육운영	■ 교육 단계별 교육 운영방법 소개
4. 온라인 실시간 강의 유형별 사례	■ 교육목적 및 내용에 적합한 교육 운영방식 안내
5. 부록	■ 온라인 실시간 교육 체크리스트 등 참고사항

총 5장으로 구성된 지침서는 온라인 실시간 교육 특징과 운영 시 고려사항 등을 실제 운영사진, 풍부한 설명과 함께 담아 온라인 실시간 교육 환경을 보다 쉽게 이해,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어, 교육 기획부터 준비·영 및 후속조치까지 각 단계별 업무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사례를 들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강의 외에 집단토론, 전문가 좌담회, 교육연극 등 국가인재원이 시도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실시간 교육방식을 유형화해 소개했다.

특히, 온라인 실시간 교육의 학습 몰입을 높이기 위한 수업 중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 사이에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수법도 제시하였다.

01

온라인 실시간 교육 운영 단계별 체크리스트

(1) 계획 수립

구분	D-14 주요 내용	비고
운영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운영체제 선정 및 온라인 실시간 교육과정 설계 ① 학습 목표 확인 및 구체화 ② 온라인 실시간 교육 유형별 체크리스트, 웹이나, 버추얼 클래스) 결정 ③ 사전에 꼭 알아야할 내용과 일련 흐름 내용을 구분하여 일도높은 교육내용 구성 ④ 교육성과 상호작용할 수 도구 및 기능 선택 ⑤ 교육성 관점에서 시뮬레이션 	

(2) 교육 준비 단계

구분	D-14 주요 내용	비고
답변기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2대 이상의 용량(상) 이상 단말기 준비 * (필수) 강의용, 모니터링용 / (비필수) 자유연결용 	
미디어장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디어 3요소 : 카메라, 마이크(헤드셋, 스피커이더폰) 카메라 : 인화율(720p, 디스플레이(1080p 이상) 마이크 : 마이크, 오디오 등 사용개수를 고려하여 선정 * 마이크, 웹캠(USB 마이크) / (선택) 오디오 인터페이스 * 스피커 : 강의실소 환경에 따라 선정 * 마이크, 웹캠(USB) 이더넷 등 / (선택) PC 스피커 등 	
플랫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성 규모, 수업방식, 비용, 안정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플랫폼 선정 교육운영용 계정 생성(강의용, 모니터링용 등) 교육성 계정 발급 제공 또는 개별 생성 후 발급등록 	

온라인 실시간 교육 운영 단계별 체크리스트

이때 강사 자리에도 구루미 화면을 볼 수 있게 별도의 디스플레이나 노트북을 설치한다면 채팅을 통해 온라인 교육생과 소통에 도움이 되며 강사의 시선처리로 자연스러워 진다.

대강당 온·오프라인 동시 교육운영 예시

오프라인 교육생을 위한 화면연결 예시

강사를 위한 화면연결 예시

교육장 온·오프라인 동시 교육운영 예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실시간 교육 운영형태 사례

해당 지침서는 국가인재원 누리집(www.nhi.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각급 공무원 교육기관 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국가인재원 박춘란 원장은 “지난 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실시간 교육방식으로 전면 전환했고, 그 운영 경험을 다른 교육기관에 전파·공유해왔다.”면서 “이번 지침서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사무관이 되기 위한 민간 전문가의 첫걸음

— 2021년 신입관리자과정(경제) 실시간 온라인 입교식 개최 —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57명이 대한민국 사무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사무관 57명을 대상으로 17일 온라인 입교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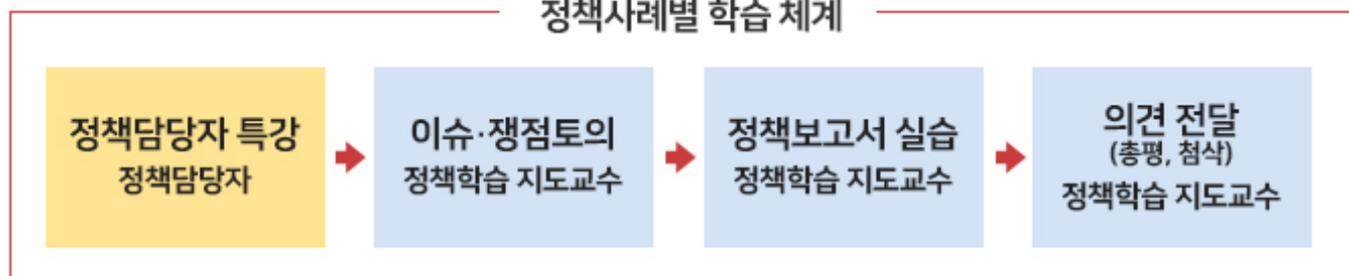
민간 전문가에서 신입 사무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번 과정은 이날부터 4월 20일까지 총 9주간 진행되며, 공직자세 확립 및 정책기획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민간 부문과는 다른 공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체화할 수 있도록 서로의 생각과 깨달음을 공유할 수 있는 '현직자와의 대담', '쟁점 토론' 등 참여형 교과가 강화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현장과 실습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기획 교육을 보다 내실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예비 사무관들은 실제 정책사례 담당자로부터 생생한 경험과 비법을 학습한 후, 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을 거쳐 직접 정책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과정을 반복해 실시한다.

특히 작성한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정책경험이 풍부한 실·국장급 공무원 출신 '정책 학습 지도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의견(피드백)을 전달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상사로부터 지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할 예정이다.

정책사례별 학습 체계



이 외에도 코로나19 확산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와 게임 형식을 활용한 정책 갈등 조정 실습 등을 통해 미래 환경에 대한 대응 역량도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후 신입 사무관의 현업 적응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각 기관에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입교사를 통해 "민간에서의 경력을 지렛대 삼아 국가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넓혀나가야 한다"면서 "각 분야 전문가는 물론 전·현직 선배 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역량을 체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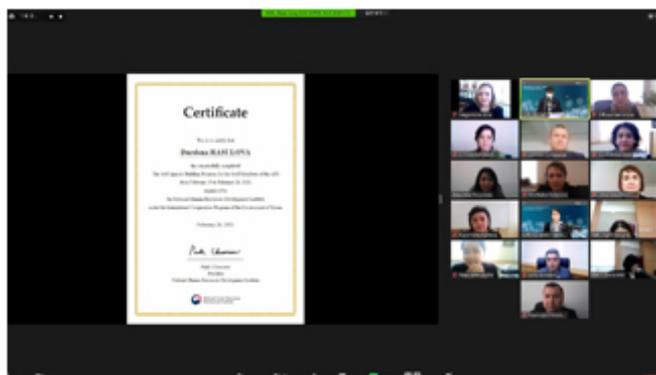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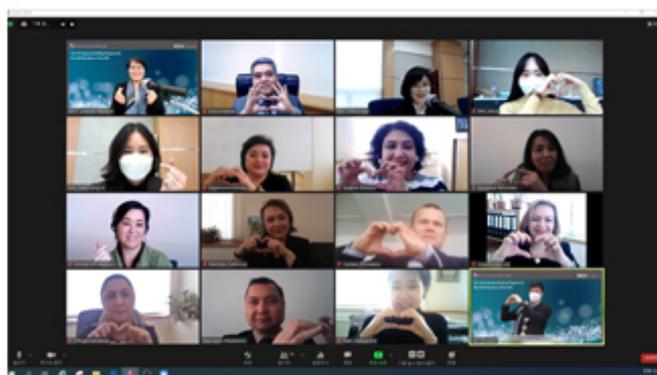


[제66기 신입관리자과정(경제) 온라인 입교식]

우즈벡 국가행정아카데미 교수·교직원에 직무역량 강화교육 실시!

— 대한민국 발전상 및 미래정부 구상 전략 등 전수, 행정개혁에 기여 —

국가인재원은 2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우즈벡 국가행정아카데미 (APA;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소속 교수와 교직원 등 17명을 대상으로 『제3차 우즈베키스탄 APA 교수·교직원 직무역량 강화과정』을 운영했다.



금번 과정은 한국의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와 개발관련 경험과 지식, 기술을 공유·전수하는 개발경험공유프로젝트(DEEP)*사업인 『우즈벡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국가행정아카데미 역량 강화사업**(2017~2021)』의 일환으로 운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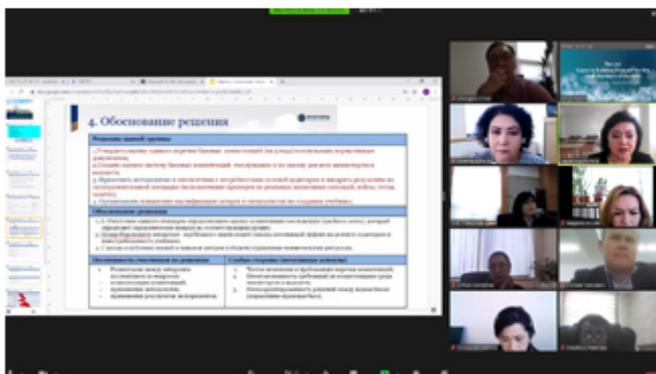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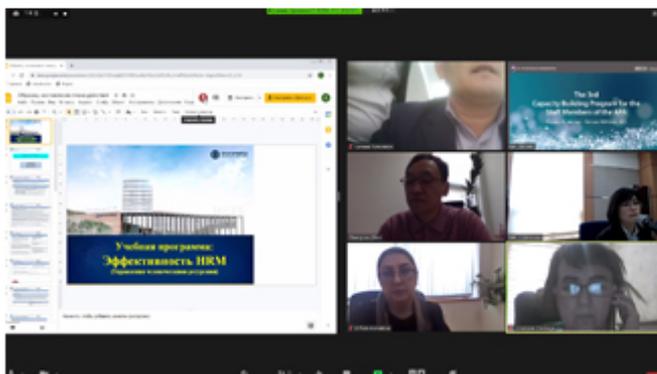
* DEEP :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 사업분야 : 공무원인사 및 교육훈련제도와 정책에 관한 컨설팅, 국가행정아카데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 등 교육 인프라 구축, 우즈베키스탄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초청연수 등

국가인재원은 올해가 개발경험공유사업의 마지막 해인 점을 고려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우즈벡 국가행정아카데미 역량 강화를 목표로 그동안 개발해 온 결과물*에 대한 시범교육을 진행하고, 향후 현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수렴도 실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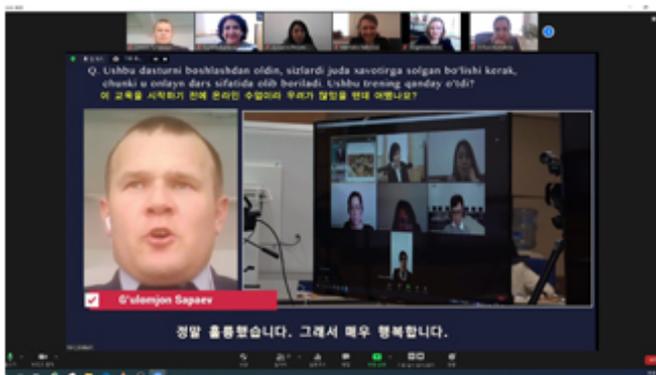
* 행정학 교과서 및 정책사례, 신규 교육과정, 이러닝 콘텐츠 등

또한, 우즈벡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국가발전 전략 이해 및 정책기획 역량 강화, 문제기반 사고력 강화 교육도 중점 실시하였다.



<문제기반학습 발표 사진>

교육생 굴롬존 사파예브 우즈베키스탄 국가행정아카데미 교수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 본 교육과정에 대해 온라인임에도 강사진의 명확한 강의와 실시간 채팅을 이용한 질의응답, 참고영상 등을 통해 다양한 교수들이 진행하는 매우 의미 있는 강의와 세미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강의 및 인터뷰 사진>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수교이후 우리와 활발한 교류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주요 협력국이다. 이번 과정이 우즈벡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국가 발전을 위한 행정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동력이 될 국가행정아카데미 교수 및 교직원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한-우즈벡 관계를 발전시키는 인재 양성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인재원은 2021년도에도 행정한류 전파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협력대상 국가와의 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대상 인재교육훈련을 지속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 교육, 최고 강사 선정

— 박태현 교수·천정아 변호사, '20년 국가인재원 명예의 전당 헌정 —

지난해 진행된 국가공무원 교육의 최고 강사 2명이 선정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지난해 출강한 외부 강사 800여 명 중 심사를 거쳐 박태현 교수(서울대)와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 2명을 최고 강사로 선정하고, '국가인재원 명예의 전당'에 지난 2일 헌정했다.



박태현 교수 서울대학교



천정아 변호사 법무법인 소헌

국가인재원은 교육운영자 추천 및 투표, 교육생 평가, 강의 내용 및 강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2~4명의 최고 강사를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29명이 선정됐다.

우수강사 발굴 및 공유를 위한 이번 최고 강사 선정은 지난해 출강한 외부 강사 8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부서 추천, 예비심사, 최종선정위원회 등의 3단계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최고의 강사로 선정된 2명은, 예년과 달리 2020년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이런 비대면 환경 가운데 교육생들로부터 높은 교육만족도와 선호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박태현 교수는 「생명공학과 미래융합기술」 강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생명공학이 우리 삶과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깊은 통찰로 교육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교육생들은 강의를 통해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지던 4차 산업혁명과 생명공학의 개념 및 미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후속 온라인 강의를 통해 다시 듣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천정아 변호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강의에서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사건처리 절차와 징계기준, 2차 피해 유형,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등을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해 공직사회 성비위 예방과 성인지 관점의 정책수립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특히, 변호사로 활동하며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교육에 활용하여 일상과 업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사례별 대처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새내기 공무원들에게서 호응을 받았다.

박태현 교수는 헌정식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공무원에게 도움이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제게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천정아 변호사도 “국가공무원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국가공무원 양성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보여준 모든 강사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면서 “국가인재원은 공무원 대표 교육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각 분야 우수 강사를 발굴하고 초청해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예의 전당 헌정식

공무원 마음건강, 세대 간 소통은 어떻게?

— '제1회 온(On)세상 지식 탐구생활' 온라인 공개강좌 개최 —

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살피는 특별한 온라인 공개강좌가 열렸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생중계 방식의 맞춤형 공개강좌를 10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온(On)세상 지식 탐구생활 : 안녕! 가치 들어요'라는 이름으로 국가인재원이 새롭게 시도하는 정기 온라인 공개강좌로 제1회 공개강좌의 주제는 '마음 건강'과 '직장 내 소통'으로 진행됐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무원의 심리적 피로도가 높아지고, 원격근무 등으로 공직 내 세대 간 소통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전문가 특강을 편성한 것이다.

강의는 ▲코로나 우울(블루) 극복하기 ▲나를 지키는 마음건강 ▲세대별 다른 생각, 함께 공감하기 ▲비대면시대, 차원이 다른 디지털 의사소통 순으로 꾸며졌다.

먼저,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상담·관리하는 공무원마음건강센터장이 코로나 우울(블루) 실제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효과적인 극복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어, 국내 심리상담학 대가인 권수영 연세대 교수가 '나를 지키는 마음건강'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커진 우울감과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과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마음근육 키우기 비법 등을 소개했다. 특히, 권수영 교수의 강의내용 중 마지막에 언급된 훈습(熏習), 연기가 몸에 베듯 공감능력을 키우기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에 큰 공감을 얻었다.



국가인재원장 인사말씀



온세상 지식탐구 생활 특강 진행 모습

김성희 씨이오(CEO)리더십연구소장은 '세대별 다른 생각'을 주제로 직장 내에서의 세대별 특징을 공유하고, 함께 일하고 싶은 조직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현장 적용방법을 공유했다. '4번 칭찬하고 1번 혼내라'라는 강의내용이 기억에 남았다.

국가인재원 강수연 전문관은 '비대면 시대, 차원이 다른 디지털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 강의에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원격 근무상황에서 전화나 전자우편, 쪽지창(메신저)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제언했다. 강의 중간에 보여주는 상황별 재연 영상이 유쾌했고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 같아 신선했다.



박수영 교수 강의모습



김성희 강사 강의모습



강수연 전문관 강의모습

이번 강좌는 온라인 교육 자료로도 별도 제작해 국가인재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누리집 '나라 배움터(<http://e-learning.go.kr>)'를 통해 제공된다.

이처럼 국가인재원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명사 특강, 좌담회,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공개강좌를 운영해 공무원 개개인의 가치는 물론, 공무원이 설계하는 정부 정책과 대한민국 가치 또한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참고) 제2회 공개강좌 : 3.31.(수) 13:30~17:00 / 효과적인 글쓰기&말하기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코로나19 방역 등 격무로 지친 공무원에게 깊은 공감과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앞으로도 소통과 협업, 디지털 혁신, 적극행정 우대 등 시의성 높은 주제로 활력 넘치는 공직 문화를 위한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국가인재 교육의 산실이 되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설립 72주년 —

지난 3월 2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개원 72주년을 맞았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원 72주년 기념행사

국가인재원은 1949년 3월 국립공무원훈련원으로 설립된 이래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와 함께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 잘하는 공직자'를 양성하는 산실로 역할 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교육 내용을 실무와 실습 중심으로 혁신하고 교육 방법을 참여형·맞춤형으로 개편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핵심역량인 미래 예측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소통과 협업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HRD(디지털 인재개발)의 선두주자로서 국내 교육기관과 교류하여 교육 개혁에 앞장서는 한편, 외국 공무원 및 국제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행정간류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춘란 원장

한편, 박춘란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등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에게 헌신하는 유능한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혁신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특히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역량 및 소통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예측역량 과정,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과정, 소통 공감교육과정 등의 교육들이 국가인재원의 명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맡은 소임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인재원 72주년 기념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박춘란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국가인재원 개원 72주년을 축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해 2월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중단 없는 교육운영은 물론, 많은 성과와 눈부신 교육혁신을 이루어 왔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고 자랑스롭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기획부, 리더십개발부, 글로벌교육부, 연구개발센터의 간부님들과 직원 분들을 비롯하여

항상, 질 높은 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일선 공무원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국가인재원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직후인 1949년 3월 21일에 설립된 이래,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간, 72년 인재원의 발자취 속에서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여 계획한 대부분의 교육을 완료하고,

각 분야별 다양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한 것은 우리 인재원의 저력과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전면 개편한 정책기획교육을 필두로, 교육내용은 현장과 실무중심으로, 교육방법은 실습과 토론 중심으로 혁신하여 우리 인재원의 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소속부처 특성을 고려한 5급 승진 관리자과정 운영, 개방형직위 공직입문과정 도입 등 교육생 맞춤형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디지털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디지털리터러시 교육도 추진하였으며, 마이크로러닝 등 새로운 교육콘텐츠를 확충하고 공공 HRD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외국공무원 교육운영 및 이집트와의 MOU 체결 등 글로벌 교류협력에도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자랑스러운 인재원 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走馬加鞭)"라는 말처럼,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올 10년, 100년 후에도 우리 인재원이 명실상부한 '국가핵심인재의 산실'로 역할하기 위해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대면 온라인이 강조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인재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러닝과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의 주역으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이론 중심, 강의식 교육으로는 더 이상 큰 호응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간의 실무·실습 중심의 교육생 참여형 정책기획교육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교육을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 실습·토론 중심의 교육생 참여 교육으로 혁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교육생들이 포용, 공정, 혁신의 국정철학을 내재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직가치 교육을 혁신해야 합니다.

이에, 그간 준비한 온-오프 연계 플립러닝 방식의 공직가치 교육이 토론, 게임 등 참여형 교육기법을 통해 실제 본 수업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확실성과 위기가 상시화되는 뉴 애플노멀 시대에는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정책적 역량과, 협업을 위한 소통·공감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예측역량과정,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 등을 내실화하는 한편, 다양한 소통·공감교육과 함께 뉴미디어를 활용한 대국민 소통역량 교육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에 기반한 미래예측 및 문제해결중심의 학습을 강화하고, 정책기획교육은 생생한 정책사례에 바탕한 실무·실습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고도화함으로써 우리원을 대표하는 명품 교육으로 더욱 고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무원 교육훈련을 선도하는 공공 HRD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신 HRD 트렌드를 각급 교육에 반영하고 마이크로러닝 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확산하는 한편, 교육컨설팅과 매뉴얼 제공 등을 통해 교육생 중심의 참여형 교육 확산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교육수요가 급증한 나라배움터는 교육생의 원활한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콘텐츠 품질관리 및 기능고도화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빛을 발한 우리원의 K-글로벌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외국과의 교류협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외국공무원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정간류를 확산하는 것은 물론, 세계 유수의 기관 및 해외의 수료생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정부의 외교를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국가인재원이 지향하는 "좋은 인재개발"은 "따뜻한 인재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내 구성원 간의 활발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따뜻한 온기가 퍼지고 함께 일할 맛 나는 인재원이 될 때, 비로소 좋은 인재개발도 가능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비상상황으로 우리 인재원 가족분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텐데, 저희가 서로 한 가족처럼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며 조금만 더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여럿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혁신하고,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재원 가족 모두의 애정 어린 관심과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인재원 가족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2년간 대한민국의 발전의 역사와 함께한 우리 국가인재원!

앞으로도 "우리 인재원의 교육이 대한민국의 정부의 경쟁력과 국민의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3월 2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박춘란

비대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코로나지만, 괜찮아'

— 집콕 시대의 코로나 블루 극복법 —

지난 2020년 초 등장해 현재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시국은 서로 온기 나누며 얼굴 마주할 기회를 송두리째 앗아갔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변화는 이제껏 당연하게 여겨온 일상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의미하는 코로나 블루가 확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물론, 공동체를 이끄는 구성원 대다수가 침체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와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리 없다. 평소 감염병의 차단과 예방만큼, 자칫 가라앉기 쉬운 우리 마음을 충분히 다독이고 위로해야 하는 이유다.

권태, 불안감, 과도한 걱정, 의욕 저하 등... 일상을 침범하는 부정적 심리 몰아내야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과 대유행은 인류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 재난이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실내에 머무르며 생기는 권태와 함께 ▲전염성 질환에 노출해 있다는 불안감 ▲유사 증상에 따른 과도한 걱정 ▲지속적인 활동 제약으로 인한 의욕 저하 ▲주변에 대한 경계심 증폭 ▲비과학적 민간요법 맹신 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사태의 파급으로 직장을 잃거나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폐업했다면 부정적 심리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미국심리학회는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스트레스 수치가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코로나 블루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 증상은 무엇일까? 우선 전염 차단 차원에서 시행하는 공간 분리나 재택근무에 익숙지 않을 땐, 일과 휴식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 또, 여행, 운동, 캠핑, 야외 레저 등이 원활하지 않아 체력 저하나 공허감을 느끼곤 한다. 더불어 계속해서 자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며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탈진을 호소한다.

흥미로운 점은, 백신에 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뤄지듯 급속히 퍼지는 우울증에 대한 극복법 역시 꾸준히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대면 세상에서 활발하게 논의한 끝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사례를 지금부터 소개한다.

01. 웅크린 마음을 날개처럼 활짝 펼치자_나비 포옹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 간에 직접 만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유대 관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워지니 자연히 우울감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질병관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관련 시민단체 등은 코로나 블루를 감소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나온 나비 포옹을 추천하고 있다.

여기서 나비 포옹이란 불안할 때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두 팔을 벌려 X자로 교차해 가슴에 얹은 다음, 양 손바닥으로 어깨를 톡톡히 번갈아 두드리며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동작이다. 이때 칭찬하듯 살짝 잡아주거나 주물러도 좋다.

심리학자 프랜신 사피로(Francine Shapiro)는 왼손과 오른손을 바꿔가며 사용하면 뇌 양쪽을 활성화해 불안과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머릿속으로 안전한 곳을 상상하거나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와 문장을 되풀이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02. 다 나쁘지만은 않아_코로나 시국의 장점 탐색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재미있는 릴레이가 이뤄지고 있으니, 바로 코로나 시국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댓글 쓰기다. 이 갑갑한 상황에 대해 무슨 즐거운 일이 있을까 싶겠지만, 아이디어를 모으다 보면 과연 고개가 끄덕여진다.

모두 마스크를 하고 있기에 여성은 화장, 남성은 면도를 살짝 건너뛴들 크게 티 나지 않는다는 경험을 포함해 ▲외부 담배 연기나 악취 원천 차단 ▲외식 축소로 요리 솜씨 늘고 식비 절약 ▲내면의 소리에 집중 ▲자택 근무로 직장 이동 시간 축소 등 의외의 토픽이 넘쳐난다. 또한, 지난 설에 친척의 듣기 싫은 잔소리나 참견, 과한 규모의 차례상 차림 등에서 해방해 명절증후군이 싹 나았다는 일화가 큰 공감을 얻곤 한다. 심지어 개인 생활을 존중하는 요즘, 자신을 위한 인생에 몰입할 수 있어 전보다 더 좋다는 의견까지 있다.

알고 보면 누구나 생각은 다 똑같다며 배 잡고 웃는 데서 심각한 생각은 저 멀리 사라지고 기분 좋은 미소만이 입가에 남는다.

03. 예술의 전당이 바로 여기에_방구석 1열에서 만나는 신세계



바깥에서 신선한 바람을 쐬 수 없어 속상할 땐 아쉽게나마 햇살이 가득한 집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볼 수 있다. 일례로, 평소 악기를 다루었다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머나먼 곳에 있는 대상과 오케스트라로 합주하거나 레슨받는 일이 가능하다. 또, 미리 채팅으로 약속을 잡고 유튜브에서 같이 합창하거나 특정 주제를 토론하는 등 이벤트를 열어 실시간 공개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은 더없이 값질 테다.

더불어 최근 <승리호>를 필두로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 <원더우먼1984>, <서복> 등의 신작이 영화관을 떠나 OTT(Over The Top, 온라인 TV서비스)에서 개봉하고 있다. 작년 영국 국립발레단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프랑스 태양의 서커스 등이 인터넷으로 선보인 공연 실황의 연장 선상으로 다양한 공연과 예술 작품이 점차 안방극장을 찾는 추세다.

혼자 놀기가 확장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그린 그림이나 한담 한담 놓은 보석 십자수를 보여주며 평가받고, 팬클럽은 각자 자기 집에서 같은 노래를 부르며 좋아하는 가수에게 팬심을 전하는 시대다. 랜선으로 연결한 온라인에선 절대 혼자가 아니다.

04. 지금 아니면 언제?_그동안 못한 일에 몰두하기



그동안 바빠서 못했다는 핑계는 접어두자. 외부의 방해 없이 몰두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 지금, 밀린 일을 처리하기엔 그야말로 적기다. 하늘길에 잠시 쉬고 있는 틈을 타 조금씩 내부 보완에 들어갔다는 인친공항처럼 우리 또한 가구를 재배치하거나 인테리어를 바꾸고 홈카페를 차리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일이다.

한편, 대체로운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외부 활동 시 다소 민망할 수 있는 자기 관리에 돌입해보도 좋은 터다. 밀린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았던 우울은 모르는 새 자취를 감춘다.

인용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코로나 블루>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31743&cid=43667&categoryId=43667>

연합뉴스, "가족 베프되고 십자수 취미도...긍정으로 코로나블루 극복해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0115100505?input=1195m>

전라일보, 비대면 시대의 자기격려 나비포옹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dxno=611341>

TV조선, '방구석 오케스트라'에서 앱으로 그린 난초까지...특목 튀는 원격수업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7/2021011790056.html

동아일보, OTT 판 커졌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09/105782813/1>

SBS뉴스, [취재파일] 방콕에 지친 당신을 위해(43)...'범 내려온다' 이날치 공연 안방에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77099&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매일경제, 빅데이터로 본 애프터 코로나...명품·성형 '보복소비' 꿈들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65220>

나를 더 스마트하게 해주는 Self 인재개발 퀴즈!



Quiz

지난 1월 국가인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자기개발과
상시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비대면 공개강좌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공개강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발행하는 <NHI Live>
대표 정책부터 행사, 이슈, HRD 소식에 이르기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최신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소식지입니다.



정답을 맞힌 7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내드려요!

응답기간

2021.3.11.(목)~2021.4.12(월)

응답하기

< NHI Live 12월 퀴즈 당첨자 명단 >

이*재, 김*예, 김*희, 손*완, 김*수, 자*석, 황*웅 님
축하드립니다.